

남원을 선도하는 관광마을 육성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운봉읍 전촌마을 일원 개발

남원시 운봉읍 전촌마을 일원이 관광 남원을 선도하는 농촌관광거점마을로 발돋움하고 있다.

지난 24일 남원시에 따르면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운봉읍 전촌마을은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곳이며, 비전마을은 판소리 동편제의 창시자인 기암 송흥록과 국학 박초원의 생가가 자리하고 있다.

또한 판소리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국악의 성지, 이성계 장군이 왜구를 섬멸한 환산대첩지 등이 있는 역사적 현장이기도 하며, 주변에는 신앙농장,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소나무 숲, 허브를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허브랜드 등이 있다.

남원시는 총 사업비 30억원을 들여 전촌(동편제)마을을 거점으로 숙박동, 커뮤니티 존 등을 설치하고, 비전마을에는 정자나무 주변에 데크를 시설해 탐방객들의 휴식처와 판소리 공연장으로 활용하며, 환산마을에는 복개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남원시 운봉읍 전촌마을 일원이 관광 남원을 선도하는 농촌관광거점마을로 발돋움하고 있다.

또한 남원시는 농촌관광 거점마을을 연내 완공해 동편제마을, 동편제적인 문화거점을 내세워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학습형 관광컨텐츠로 학생들의 단체 교육체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은 사람 찾는 농촌, 가고 싶은 농촌, 머무르는 농촌을 슬로건으로, 지역사회의

색다른 자원을 활용해 농촌마을의 소득을 창출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남원시 이준무 농정과장은 "앞으로도 농촌관광 거점마을을 알차게 운영해 판소리를 바탕으로 남원의 새로운 관광 트렌드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

순창군, 합계 출산을 전국 4위

2년 연속 전북 1위

저출산 극복 정책에

14억여원 투자

순창군이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출생통계'에서 합계출산율 1.80명을 기록하며 전국 4위에 올랐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2016년 합계출산율 2.02명으로 전국 2위를 기록한데 이어 성과로 2년 연속 전북 1위를 지켰다. 특히 전북에서 합계출산율 전국 상위 10위안에 링크된 시군은 순창군이 유일하다.

순창군의 1.80명은 전국 평균 1.052명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이처럼 순창군이 2년 연속 합계출산율 부문에서 눈에 띄는 기록을 나타낸 것은 출산정책 뿐만 아니라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만들기에도 집중하면서 정책의 입체적 연계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군은 첫째아이는 300만원, 둘째는 460만원, 셋째는 1,000만원, 넷째이상 1,500만원을 지원한다. 출산뿐만 아니라 입체적인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사업이 병행된다. 임신부부터 산전관리 및 출산이송비를 지원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및 출산가정건강관리사를 지원한다. 영양플러스 보충식품제공과 기저귀 교체분유 지원 및 고위험 임신부의료비도 지원된다.

최근 문을 연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도 영유아들과 부모들에게 호응을 받으면서 아이키우기 좋은 순창의 이미지를 키우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출산 지원책과 아이를 낳은 후에도 편안한 환경에서 키울수 있도록 만드는 입체적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으로 출산율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로 젊은이들이 순창으로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활기가 넘치는 순창을 만드는데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2014년 148명까지 내려갔던 신생아 수가 2015년 186명, 2016년 254명, 2017년 219명을 기록하며 출산정책의 효과를 이어가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신청 접수 열기 뜨겁다'

11월 11-12일 개최 '임실 아사아사 김장 페스티벌'

오는 11월에 열리는 제3회 임실 아사아사 김장페스티벌을 앞두고 사전 신청 접수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올해 김장에 대해 고민 중인 가정이라면 김치명인이 함께하는 임실군 김장 페스티벌의 참여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 같다.

임실군은 김치명인이 함께하는 제3회 임실 아사아사 김장페스티벌을 11월 10일과 11일 양일간에 걸쳐 임실군 성수면에 소재한 임실N농업가공·김치체험장 앞 광장에서 개최한다.

이를 위해 이날 20일부터 참가신청자 접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해 참여했던 가정은 물론 입소문 홍보에 힘입어 관련 신청접수와 문의가 갈수록 쇄도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올해 김장 페스티벌은 김치물량 3톤kg에 1000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전접수 4일차인 23일 현재 200세대를 넘

어서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조기에 마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사전 참가를 희망하는 주부들의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어, 마감기간까지 참가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같은 인기는 2016년 도내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김장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에 따른 입소문 효과를 탄 것이 주요원인이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김장페스티벌은 지역민은 물론 김장에 대한 부담이 큰 전주, 군산, 익산 등 인근 도시민들의 참여열기가 매우 높다.

올해 김장페스티벌에서는 노래자랑과 퀴즈, 요리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알차고, 고무장갑, 두건 등을 제공하고 수육, 임실군 농특산물판매 부스 등을 설치하여 즐거움에 편의성까지 곁들인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행복한 가족사진 공모전 개최

남원시는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월간 자녀와 함께 한 즐거운 순간을 담은 '제3회 행복한 가족사진'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 출품자격은 남원시민으로, 1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2점까지 작품을 출품할 수 있으며, 디지털 또는 휴대폰카메라로 어린 자녀와 함께 즐거웠던 순간을 담은 행복한 가족사진 원본과 함께 작품제목, 촬영장소, 촬영일자, 등 간략한 사진설명과 접수자정보를 작성해 시보건소 이메일(mwbbaby@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오는 10월 21일 제26회 흥부제 행사에서 시상 전할 계획이며, 향후 다양한 출산장려 홍보물에 삽입 활용할 계획이며, 접수는 시 보건소 이메일(mwbbaby@korea.kr)로만 접수받으며, 전년도 접수자도 응모가 가능하고 보건소 출산지원담당(620-7941)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순례 보건소장은 "올해로 3회째 운영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최근 출산 기피 문제에 대한 분위기 반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가정에서 참여해 주시면 한다"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임실군은 지역주민 만19세 이상 성인 900여명을 대상으로 10월 31일까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전북대학교, 임실군보건의료원이 함께 공동으로 실시하며 조사는 가구원의 동의 후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1:1 면접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조사결과를 우리지역의 보건사업계획을 수립, 평가하는데 있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강태구 보건사업과장은 "정확한 통계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가구로 선정된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